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이선주
출장기간	2010. 3. 7 - 3. 13		출장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목적	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2주차 회의에 참가 나)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 주제: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평가					
경비부담	우리 원 부담 (4,657,400원)					
주최기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경제위기와 여성의 경제적 권한 -ECOSOC 연례각료급 점검회의관련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기제의 역할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채택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0. 4. 22.

출 장 복 명 자 : 이선주 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54차 유엔여성지위원회 참가

2010. 4. 22

보고자 : 이선주

(평등사회통합연구실, 평등문화정책센터 연구위원)



□ 출장일정

출장일정	내용	
2010. 3. 7(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뉴욕으로 출발
	오전 10시 40분	뉴욕도착, 호텔로 이동
2010. 3. 8(월)	오전 10시	고위급회의 (숙개)
	오후 3시	경제위기와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패널
2010. 3. 9(화)	오전 10시	결의안 비공식 논의
	오후 3시	ECOSOC 연례각료급 점검회의(AMR)에 대한 패널
2010. 3. 10(수)	오전 10시	결의안 비공식 논의
	오후 3시	청원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의 보고서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
2010. 3. 11(목)	오전 10시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대한 패널
	오후 3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기제의 역할에 대한 패널
2010. 3. 12(금)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채택	
2010. 3. 13(토)	오후 12시 40분	뉴욕에서 서울로 출발
	오후 6시	서울도착

## 1. 2010년 3월 8일(월): 금융위기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패널

### 가. 패널리스트 발언 요지

- Alma Espino 우루과이 국립대 교수는 오늘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의 참여도 증가하는 등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여러 형태의 차별이 경제 분야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고, 경제위기 시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과 남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여성의 공식영역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부족,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낮은 대표성, 소득 격차, 법과 관행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개발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및 사회적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
- 경제학자인 Mona Khalaf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여성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성 평등한 자원 분배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함.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미시적으로는 여성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거시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 및 여성 노동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옴.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지출 감소에 따라 여성의 고용이 감소하고, 여성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지적 고용전략 수립 및 소액대출(Micro-credit) 사업 활성화 등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함.
- Rania Antonopoulos, Levy Institute 양성평등과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경제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계층으로 금융 분야, 시장 생산 분야, 공공 분야, 가정 생산 분야 (양육, 출산,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포함) 차원으로 구성된 틀을 설명하고,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투자가 가정 및 국가 차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함.
-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한 공적 투자확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

## 나. 질문 및 토론

- 스페인, 이태리, 콜롬비아 등 다수 국가가 현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심화되는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언을 요청함.
- 또한, 가사노동자와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조치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방안 및 경제적 정책결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노동시장에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패널리스트의 관점에 관해 질의함.
- 패널리스트들은 경제 위기 시의 무임금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과 비공식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 장치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사적 영역인 개별 가구 안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할당제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닌 바, 할당제의 성과가 일정선에 도달한 다음에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해야 함.

## 2. 2010년 3월 9일(화): ‘ECOSOC 연례각료급 점검회의(AMR)’에 대한 패널

### 가. 주요 인사 발언 내용

- o **Asha-Rose Migiرو 유엔 부사무총장:** 금년 경제사회이사회 연례 각료급 점검회의(AMR)의 주제가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이행’임을 환영하고, 유엔 및 각국의 개발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 o **Hamidon Ali (ECOSOC 의장):** 경제사회이사회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 MDGs의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6월 말 개최예정인 금번 AMR이 다양한 분야의 주체자들이 개발 관련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함
- 개발 분야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임을 강조하고, 여성과 여아와 관련한 문제는 cross-cutting 이므로 모든 주요 개발 정책 분야에서의 주요 고려 분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올해의 AMR에는 13개국의 국별 프리젠테이션(NVP)이 있을 예정이며, MDG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임.

### 나. 전문가 패널 발언요지

- o **Gita Sen (하버드 교수):** 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그 사회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임. 작금의 경제위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상황은 전지구화의 문제, 재정적 붐의 문제, 분쟁지역, 원조의 비효율성과 같은 트랩에 빠져있음을 언급함. 한편, 조건적 현금 급여(Conditional Cash Transfer)가 여성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향후 5년의 진전을 위해서는 재정 강화, 젠더 아키텍처(gender architecture),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도력, 양성평등을 위한 책무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함.

- **Agnes Quisumbing(국제식량 정책 연구소):** 양성평등 증진은 빈곤감소의 중요한 요소임. 건강과 개발 분야에서 남녀의 불평등을 줄이지 않고서는 MDGs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빈곤감소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여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여성의 재산권 강화하고 여성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Leymah Roberta Gbowee(여성, 평화와 안보 네트워크):** 여성과 여아가 분쟁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만, 여성이 평화재건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평화재건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전략은 분쟁지역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필수적인 것임.

#### 다. 질문 및 토론

- 파키스탄, EU 등은 젠더이슈와 MDG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였음. 또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방안은 무엇이며, 경제위기시의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
- 분쟁지역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는 않는가에 대하여 질의
- 패널리스트들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긴축재정정책을 제시하지만, 이는 오히려 빈곤한 여성의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고 응답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함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통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답함.
- 분쟁지역에서 평화재건을 위한 중개자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여성이 평화재건을 위한 중개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Security Council의 결의안 1325은 분쟁지역의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

- 많은 정부가 여성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온적임, 할당제 없이는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제도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3. 2010년 3월10일 (수): 청원실무위원회(WG)의 보고서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
4. 2010년 3월11일 (목):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기제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패널

#### 가. 패널토의: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Robert Storaci 부의장 (이태리) 주재로 진행된 동 패널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성 및 소년과의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국내법의 중요성, 분쟁지역에서 여성인권 등이 논의 되었음.

#### 1) 패널리스트 발언 요지

- **Dean Peacock (Sonke 젠더정의 네트워크 국장):**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소년들의 참가가 필수적임.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폭력에 대한 남성과 소년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성과로 볼 수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 및 소년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더불어 폭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국가 계획과 정책의 수립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 **Susanna Chiarotti (인권변호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내법은 인권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의 책무, 국내 상황 등을 반영한 포괄적인 법으로 폭력 제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해야 함.
- **Walter A. Füllemann (ICRC):** 인권과 난민관련 국제법은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법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전쟁 시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 분쟁 또는 전쟁이 발발한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이들의 위치를 증명해 줄 서류 등의 부재로 상속권과 자녀보호권 등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 배우자의 실종 또는 사망으로 인해 여성들이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여성들은 간강, 성적 폭력, 부상 등을 당하기도 함. 또한 전쟁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파괴되면서 의료서비스, 특히 재생산관련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국내법에 강간과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계획 수립의 여성 참여를 도모해야 할 것임.

## 2) 질문 및 토론

- 요르단, 스페인(EU) 등의 국가는 폭력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현상이 폭력이라는 형태를 통해 나타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함.
-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남성 및 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또는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함
- 아르메니아와 NGO 등은 분쟁지역에서 강간과 성적 학대를 범죄로 취급하여 이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을 이슈화하는 것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함.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면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분쟁지역에서 여성과 인질 및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법을 존중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범죄로 보고, 이를 저지른 자는 처벌하는 것은 현세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강간범과 성적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 및 소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은 법적 틀의 마련, 국가계획수립, 예산 확보, 시민사회의 지지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폭력제거에 각별한 관심을 두는 것이라 답변함.
- 또한 여성 스스로 자신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변함.

#### 나. 패널토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제의 역할

Takashi 부의장(일본) 주재로 진행된 동 패널에서는 국가기제의 강화 및 성주류화의 수단인 성 인지적 예산이 논의 되었음.

##### 1) 패널리스트 발언 요지

- **Rounaq Jahan (정책연구원):**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이후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제를 만들고 성 주류화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 되었음. 지난 20년 동안 법 개정, 국가기제의 성장, awareness-raising, 여성 대표성 증진, 성주류화, 여성의 역량강화, 시민사회의 강화, 지역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음. 반면에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국가기제가 입지가 불안정하거나 주변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미진한 문제점도 나타났음. 정치적 의지가 여성관련 국가기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국가기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Margaret Mensah-Williams(나미비아 국가위원회 부의장):** 나미비아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취하고자 하였음. 여성관련 국제 협약에 비준하면서 국가의 젠더정책과 양성평등행동계획을 수립하였음. 나미비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인해 양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태도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 여성의 지위 향상에 제한점으로 나타나고있음.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남성과 권력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성 임계치(critical mass)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Mary Rusimbi(젠더 전문가):** 양성평등 증진과 성 주류화를 위해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개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성 주류화는 남녀의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촉매제임. 국가기구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 인지예산은 성주류화를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임. 다수의 국가에서 성 인지예산을 여성부와 같은 국가기구에서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이것을 실행하는 주요 부처는 재정부가 되고 있어 다른 부처들의 awareness-raising이 요구되고 있음.

국가차원의 성 주류화전략은 새로운 원조양식(New Aid Modalities, NAMs)과도 연계되어 있음. 새로운 원조양식은 개발원조에 재정적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수원국에서 성 주류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 질문 및 토론

- 성 주류화의 수단인 성 인지예산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타 국가기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함.
- 국가기제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들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 또한 작금의 경제위기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도 연구해야 하고, 성별통계의 구축과 지표생산도 성 주류화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함.
- 국가기제는 법적 기반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성 인지예산이 지속성을 가지고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 국가 예산이 이에 반응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즉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성인지예산이 부가적 예산시스템이 아닌 재정부의 핵심 예산시스템으로 간주되도록 하여한다고 답변함. 각 부처가 여성담당관은 두어 중요하다고 답변함.

## 5. 2010년 3월12일 (금): 아래의 7개 의결안 채택

- 여성, 여아 그리고 HIV/AIDS (Women, the girl child and HIV/AIDS)
- 분쟁지역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과 볼모로 잡혀 있는 여성과 여아의 석방 (Release of women and children taken hostage, including those subsequently imprisoned, in armed conflicts)

- 팔레스타인 여성의 지원 (The situation of and assistance to Palestinian women)
-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Women's economic empowerment)
- 여성 권한 강화를 통한 모성사망율과 질병으로 사망 제거  
(Eliminating preventable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through the empowerment of women)
- 유엔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양성평등지원과 여성의 권한 강화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United Nations for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by consolidating the four existing offices into a composite entity)
- 여성의 생식기 제거 소멸 (End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 6. 시사점

- 가.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1995년)이 채택된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따라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이에 맞추어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나.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같은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여성계에서는 이를 젠더이슈와 결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젠더이슈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것임
- 다. 국제사회는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를 연계하여 MDG의 성 주류화를 논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MDG 달성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성 주류화의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것임
- 라. 2008년 우리나라가 OECD/DAC에 가입하면서 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목적으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빈곤퇴치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자료는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15/index.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

